



4월 7일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왼쪽 세번째)과 포교부장 송욱 스님(왼쪽 끝),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장(왼쪽 두번째)을 선두로 포교결집대회에 동참한 포교사들이 힘차게 계룡산 등반을 하고 있다.



동학사 특설법단에서 열린 조계종 '2012포교결집대회·국태민안기원 계룡산 등반대회'.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엄홍길 초대회장이 조계종 산악회 창립을 상징하는 깃발을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1만 불자 '웃음꽃 동반' 전법 다짐

조계종 포교원 2012포교결집대회 계룡산 등반

"피어나는 봄꽃을 보니 포교전법의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4월 7일 따스한 햇볕이 비추는 오후 1시, 공주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 옆 등산로로 1만 명의 포교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을 올랐다.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 회장을 선두로 산행에 참가한 포교사들은 얼굴로 흐르는 땀을 서로 닦아주며, 또 시원한 갈로수를 권해가며 환하게 웃었다.

의 법문, 자비의쌀전달식, 대전충남전법단 창립, 조계종산악회 창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 스님은 "포교는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결집된 대중의 힘이 전체에야 가능하다"며 "불자들이 각 사찰과 종단의 다양한 신도 조직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불사를 진작시키는데 포교원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포교결집대회에서 창립된 조계종 산악회(산악회장 엄홍길)의 주도 아래 동학사를 거쳐 상원암 남대탐, 금잔디고개를 넘어 감사까지 올랐다.

"건강에 좋다고 해 2년 전부터 매주 주말이면 전국명산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조계종에서 산악회를 구성해 불자들이 함께 산을 오르니 어떤 힘도 불끈 솟습니다. 보이는 등산객들 모두가 불자가 됐으면 하는 욕심도 생기네요!" 경기인천지역 포교사단에서 참가한 자인 최원진 포교사는 "등산을 통해 포교 원력을 더욱 키우겠다"며 힘차게 말했다.

"산은 집 인근에 위치한 곳 외에는 처음 봐요. 디지털불교대학 총동문회 차원에서 참가했는데 인터넷에서 주로 만나던 도반들을 등산을 통해 만나 교류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조계종 디지털 불교대학 총동문회 소속 이순연 씨(울산경남지역 포교사단)는 평소 만나지 못했던 수강생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 즐겁다며 밝게 웃었다. 앞서 가던 디지털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 10여명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뒤를 돌아보며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이날 산행은 계룡산 등반 팀, 동학사와 감사 등 3개 사찰 순례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계룡산 등산로 입구를 출발한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엄홍길 산악회장, 포교사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간 여를 걸

대한불교조계종 산악회 창립

'자비와 생명살림'을 등산 문화로

어 등산코스가 시작되는 동학사로 향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이들은 출·재가의 울타리를 벗어 나 함께 땀 흘리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서로 건넸다.

평소 등산에 관심이 많던 포교사들은 선두에 선 엄홍길 산악회장을 찾아 등산 요령들을 묻기도 했다.

본격적인 등산로가 펼쳐지자 가쁜 숨이 차올랐다. 가파른 산길에 거동이 힘든 노보살들은 쉬며 관음정근 등을 하기도 했다. 상원암 남대탐에 도착한 불자들은 한걸음 한걸음 남대탐을 돌며 전법의 지지를 다졌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주5일제 도입, 여가문화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산행단체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산인구에 대한 포교전문단체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흔적없는 등산' 등 자연보호와 생태살림에 대한 등산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에 대한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이날 등산에 참여한 불자들이 단순히 산을 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불자들은 산을 오르며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존운동도 함께 펼쳤다. 이에 앞서 출발지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마련, 지역특산물 구매에도 심심일만 동참했다.

계룡산 산행에 함께 참가한 이기홍 대한체육인복지회 회장(런던올림픽선수단 단장)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걷기인데 특히 산을 오르는 것은 심폐운동과 중년 이후 건강에 직결되는 체력 단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가 국민여가생활과 운동에 불교의 생명살림과 나눔 정신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4시간 가량의 산행 끝에 감사 앞마당에 모인 불자들은 환희심에 가쁜 숨조차 보이지 않았다. 계룡산에 지는 노을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고 불자들은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계룡산=노덕환 기자 noduo@hyunbul.com

"산에서 '한걸음의 위대함' 배우세요"

엄홍길 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

"불자들이 산행을 통해 신심을 더욱 다지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우리 사회에 자비정신을 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창립된 조계종 산악회 엄홍길 초대회장(사진)은 "히말라야 8000m 16좌를 등반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응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조계종 산악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홍길 회장은 야외무대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공양을 함께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엄 회장은 "절에 간다는 마음, 부처님을 배려 간다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산을 탄다면 다치는 일도, 힘든 일도 없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등산에 앞서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을 타며 느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자기 성찰의 힘일까. 엄 회장은 '엄홍길휴먼재단'을 세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 함께 산에 오르며 목숨을 잃었던 동료, 세르파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2009년부터는 네팔 히말라야의 오지마을에 초등학교 16개를 건립하고 있다. 이날 산행에



앞서 열린 포교결집대회에서는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유명을 달리한 박영석 대장 등 산악인들의 영가를 위로하는 위령의식이 진행됐다. 엄 회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故박영석 대장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동참해 눈시울을 붉혔다.

"기상악화로 등반이 멈춰질 때면 여러 책을 읽는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맨몸으로 히말라야를 넘어온 80세 노스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다'고 답합니다. 저도 매년 산을 오를 때 마다 한걸음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한 걸음씩 내디딜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③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거운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어새기인등



펜션(케이블)연등



주름등



영정(케이블)연등



칼라카시인등



영가등



크락왕생



포단등



크락왕생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